

미겔 바르넷의 『갈리시아인』에 나타난 디아스포라 경험과 정체성의 변화*

조 혜 진
고려대학교

조혜진(2015), 미겔 바르넷의 『갈리시아인』에 나타난 디아스포라 경험과 정체성의 변화. 이베로아메리카연구.

초 록 이 작품의 주인공인 갈리시아 이주민은 일견 누추하고 불안한 현실에서 사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의 어조에는 좌절, 체념, 허무, 환멸보다는 오히려 곳곳하게 현실을 살아가려는 적극적인 진취적인 태도가 지배적이다. 또한, 항상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는 자세와 정체되지 않은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가 두드러진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한 이주민의 성장 국면을 세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다루고자 했다.

첫째, 주인공은 아버지의 부재를 극복하고자 투쟁하는 과정에서 성장한다. 이때 '아버지'란 실제 아버지와 사회적 규범이라는 두 가지 층위를 의미한다고 여겼다. 아버지의 부재는 사회와의 화해를 어렵게 해 주인공으로 하여금 고독을 유발함과 동시에 타락한 사회로부터의 이탈을 허용한다. 이에 주인공은 순응적 주체로 사회에 편입되기를 거부하며 쿠바라는 새로운 세계로 횡단한다. 둘째, 주인공은 다양한 사회경험과 이문화(異文化)를 통해 세상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혀나간다. 다채로운 모습의 사회를 겪으면서 삶에 대한 이치와 지혜를 터득하고 다른 문화를 경험하며 정체성이 확장되기 때문이다. 셋째, 개인과 가족이라는 사적 영역에 대한 관심을, 지역사회와 공동체라는 사회로 확장함으로써 성장이 이루어진다. 주인공은 시대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비판의식을 보이는 한편 지역사회를 위한 기부와 스페인 내전 참여라는 직접적이고도 적극적인 방법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그는 차츰 성숙한 시민의식을 드러냄으로써 과거의 자신으로부터 진일보한 모습을 보인다.

이민생활은 녹록지 않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는 자신의 경험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그것을 통해 배우고 발전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디아스포라 경험은 주인공에게 배움과 성장의 장(場)으로 작용한다.

핵심어 성장소설, 정체성, 디아스포라, 『갈리시아인』, 미겔 바르넷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B5A07037337).

I. 들어가며

이 글에서는 라틴아메리카 증언문학의 개척자로 평가받는 미겔 바르넷(Miguel Barnet 1940~)의 『갈리시아인 *Gallego*』(1981)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정체성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Sklodowska 2002, 799).¹⁾ 미겔 바르넷은 쿠바의 인류학자이자 작가로 1966년에 출간한 『어느 도망친 노예의 일생』을 통해 증언소설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환기시키면서 라틴아메리카 소설계에 예술성과 사실성을 효과적으로 배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송병선 2002, 344). 이 작품으로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르넷은 이후 유사한 성격의 작품들인 『라첼의 노래』(1969), 『갈리시아인』(1981), 『실제의 삶』(1986), 『천사라는 직업』(1989)을 집필함으로써 증언소설 5부작을 완성하고 이 작품들은 라틴아메리카 증언소설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이 논문에서는 20세기 초 스페인의 갈리시아 지방을 떠나 ‘신세계’로 일컬어지던 라틴아메리카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려는 어느 이주민의 삶을 다룬 『갈리시아인』에 나타난 이주 경험과 정체성의 변화를 살펴되 주인공의 성장에 초점을 맞춘 채 작품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작품은 형식면에서 증언소설, 내용면에서는 디아스포라 소설로 분류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 작품에 대해 진행된 연구는 증언과 실제 역사 간의 관계, 이민국에서 타자로 살아가는 신산한 경험, 이주 전후 고국과 이민국에 대한 기억의 역전, 뿌리 뽑힌 정체성으로 인한 갈등과 혼란, 경계인으로서의 정체성 등 좌절된 유토피아를 다루는 데 집중되어 있다.²⁾ 그러나 이 글에서는 주인공이자 정보제공자가 여러 번의 이주를 통해 과

1) 이 작품은 1988년 쿠바 감독 마누엘 옥타비오 고메스에 의해 동명의 영화로도 제작되었으나 본고에서는 원작소설만을 분석대상으로 삼겠다.

2) 이주를 전후하여 고국과 이민국에 대한 인식이 역전되는 양상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Antonio Carreño(2003), “Topografía de la memoria: Identidad y cultura en *Gallego* de Miguel Barnet”, *Hispania*, Vol. 86, No. 4, pp. 773-781. 타자로서의 실존과 유토피아의 좌절에 대해서는 José Ismael Gutiérrez(1994), “‘Gallego’ de Miguel Barnet: de la utopía frustrada al conformismo existencial”, *Quaderni ibero-americañi*, Vol. 75, pp. 15-29를 참조하기 바란다.

거의 자신을 극복하며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에 주목함으로써 이주가 안고 있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살피고자 한다. 아울러, 일견 남루하고 불안한 이민생활을 영위하는 주인공이 자기 연민이나 환멸, 소외와 좌절보다는 개척자처럼 적극적인 어조를 견지하며 삶을 긍정하고 세상을 배우려는 모습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이 작품을 빌둥스로만(Bildungsroman), 즉 성장소설의 관점에서 분석할 것이며 이 작품에 나타난 성장소설의 특징과 그 특징의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II. 성장소설이란 무엇인가?

‘성장소설’, ‘교육소설’, ‘발전소설’ 등으로 번역되는³⁾ 빌둥스로만(Bildungsroman)의 어원적 의미를 살펴보면 “傷(Bild), 描象(Abbild), 닮은 모양(Ebenbild), 모방(Nachbildung), 형상(Gestalt), 그리고 형성(Gestaltung)”이라는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이보영 · 진상범 · 문석우 1999, 85-86). ‘빌둥(Bildung)’이라는 말은 처음에는 독일 중세 신비주의자들이, 인간이 본래 지니고 있던 신의 형상을 되찾으며 종교적 운동을 벌이면서 사용한 용어였으나 18세기로 접어들며 성장은 인간에 대한 신의 영향뿐만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내재적으로 작용한 힘이라는 개념으로 파악되기 시작했다(가다머 2000, 43-45). 이 시기에는 성장이 인간의 이성적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개성을 계발하는 계몽주의적 의미를 지녔다.

인문주의 철학에서 성장의 의미는 각 개인에게 작용하는 외적인 힘과 내적인 힘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 즉 외부의 영향을 통해 개인을 현존하는 목표에 따라 보편적으로 형성시킴과 동시에 본질적으로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는 능력

3) 이 용어들 중 본 논문에서는 ‘성장소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이 글에서는 등장인물이 개인에게 작용하는 외적인 힘과 내적인 힘의 균형을 추구하며 부단히 개인의 내면적 성숙을 보인다는 점에 초점을 맞출 것인데 ‘성장’이라는 단어가 이 의미를 가장 잘 반영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발전소설은 주인공의 성장과정만을 중시하고, 교육소설은 일정한 교육적 목적을 위해 한 주인공의 성장과정을 교육적 측면에서 다루는 소설을 말한다(이보영 · 진상범 · 문석우 1999, 91).

을 완성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프리드리히 폰 블랑켄부르크는(이보영 · 진상범 · 문석우 1999, 86-87) 이와 같은 성장소설의 개념을 학문적으로 시도한 최초의 학자다. 그는 모든 소설이 사건을 통해 주인공의 성격을 완성시키고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성장소설의 이론적 기틀을 만들었고, 이후 다른 학자들에 의해 성장소설의 개념은 더욱 발전되었다. 빌헬름 딜타이(Wilhelm Dilthey)는 성장소설의 역사와 개념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철학자로 그는 성장소설을, 현실과의 투쟁 속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며 세계 속에서의 자신의 사명을 의식하고 자아를 발견하면서 성숙해 가는 과정을 묘사한 소설로 정의한다(이보영 · 진상범 · 문석우 1999, 89-90). 그는 개인과 사회의 변화, 사회 속에서 개인의 상승, 자아의 사명의식을 인식한다는 차원에서 성장소설의 정의에 대한 지평을 넓혔다.

비평가 A. 쿠시지안은(Kushigian 2003, 22-28) 전통적인 성장소설은 중산층 출신의 백인 남성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규범적 인간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다룬다고 지적한다. 즉, 백인 남성 화자가 가정에서의 구속과 압박을 거부하며 세상을 탐험하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 여행길에 오르는 것이 전통적인 성장소설의 전형이었다는 것이다. 주인공은 자신과 상반되는 세계관으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결국 자신의 삶, 재능, 일, 교육, 가정 등 사회적 관점을 반영하는 세계관을 선택하고 대단원에서는 새로 발견한 철학과 사회화 기술을 증명하고자 집으로 돌아오는 서사구조를 취한다. 그러나 그는 오늘날의 성장소설은 정전에서 벗어나 더욱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고 평한다(Kushigian 2003, 27-36). 다시 말해, 사회가 다원화됨에 따라 백인 남성 중심의 정전에서 벗어나 여성, 원주민, 흑인, 동성연애자, 가난한 사람, 사회주의자 등 사회적 · 문화적 · 정치적 · 인종적 배경이 다양한 인물들이 중심인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통적인 성장소설이 사회 규범을 수용하며 행복한 결말로 끝난 데 비해 오늘날의 성장소설은 종종 불행한 결말이나 열린 결말로 마무리되기도 한다. 이렇듯 탈정전화된 성장소설의 입체적인 화자들은 사회의 규칙을 거부하고 문화와 젠더를 통해 사회를 새롭게 규정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쿠시지안의 관점을 반영하여 등장인물이 인간의 다양한 가치관과 소통하고 다원적 문화를 경험함으로써 자아를 넘어선 자아가 되고자 노력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즉, 『갈리시아인』의 주인공이 이민과 이주를 경험하고 자아를 확장하는 모습을 다루되 성장소설의 특징 중 아버지의 부재 극복, 다양한 사회경험과 이문화(異文化)를 통한 도야, 사회로의 시야 확장을 중심으로 분석하도록 하겠다.

III. 『갈리시아인』에 드러난 성장

1. 아버지의 부재 극복

『갈리시아인』은 쿠바에 60년째 거주 중인 마누엘 루이스(Manuel Ruiz)라는 80세 노인이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술회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구술자이자 정보제공자⁴⁾인 마누엘은 스페인 갈리시아의 폰테베드라 출신인데 이 지역은 지금까지도 스페인에서 가장 경제 수준이 낮은 곳이다(안영옥 2008, 150). 정보제공자는 자신의 일대기를 포함한 동시대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자신이 경험한, 인간으로서의 계속된 성장과 굴곡진 삶의 여정을 드러낸다. 그는 20세기 초반 16세라는 젊은 나이에 스페인에서 쿠바로 이주하게 된 배정, 대서양 횡단, 아바나에서 보낸 고되면서도 역동적인 이민생활, 본국으로의 역이주, 스페인 내전 참전, 쿠바로의 재이민 경험 등에 대해 구술한다.⁵⁾ 먼저, 마누엘이 고향을 떠나 대서양 너머의 타국으로 이주하게 된 데에는 아버지의 부재가 절

4) 미겔 바르넷은 증언소설의 화자를 정보제공자라고 부른다. 바르넷은 증언소설의 첫 번째 특징으로 정보제공자의 1인칭 서사를 꼽으며 그 의도를 “민중에게 큰 영향을 미친 주요한 사건을, 적합한 주인공의 입을 통해 기술함으로써 공식 역사에서 감춰진 현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한다(Barnet 2011, 17-18).

5) 이것은 마누엘의 개인사이기도 하지만 비단 한 개인의 역사에 머물지 않고 20세기 초반 쿠바로 이주한 수많은 갈리시아인들을 대변하기도 하며, 그들이 몸소 겪은 시대적 경험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다. 마누엘의 증언에는 정보전달자 한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동시대를 경험한 다수의 삶이 종합되어 있다(Barnet 2011, 25). 나랑호 오로비오와 곤살레스 마르티네스도 바르넷이 마누엘을 통해, 쿠바에 거주하는 스페인 이민자의 전형형을 제시한다고 평가한 바 있다(Naranjo Orovio y González Martínez 1984, 219).

대적인 영향을 끼쳤다. 여기에서 아버지란 주인공의 실제 아버지와, 사회적 규범으로서의 아버지를 가리킬 수 있다. 아버지의 돌연사로 인해 주인공과 어머니간의 관계도 왜곡된다.

내가 어렸을 적, 그곳은 공동묘지보다 더 슬픈 곳이었지. [...] 내 불쌍한 어머니는 귀가 먹고 말았는데 어머니가 한 것이라곤 성호를 그으며 우는 것뿐이었어. 어머니에게 그 마을은 내 아버지가 물에 빠져 익사했을 때부터 공동묘지로 변해버렸지. 할아버지는 항상 친구분들에게 어머니가 “마누엘리요, 마누엘리요, 나를 떠나지 마!”라고 하도 소리를 지르는 통에 귀가 먹은 거라고 말씀하셨어. 나는 당시 두 살인가 세 살이었는데 결국 나에겐 아버지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지. 어머니도, 음,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다면 말이야, 벽에 바짝 붙은 채 높은 삼나무 의자에 앉아 울기만 했지. 엄마는 나를 전혀 사랑해주지 않았어.(Barnet 1981, 18)

마누엘은 아버지에게 대한 기억이 없고, 어머니도 남편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정신을 잃은 나머지 마누엘과 두 여동생을 전혀 돌보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어머니는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채 마누엘을 보기만 하면 계속해서 그를 아버지의 이름으로 호명했고, 심지어 마누엘이 16세의 어린 나이에 대서양을 건너 쿠바로 떠나는 날에도 아들이 떠나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한다. 그렇기에 주인공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어머니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심지어 그녀를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한다. 아버지의 부재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 경제활동을 담당할 인력의 부재로 이어지고, 이는 생존 조건과 관계된다. 주인공에게는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조부모와 어린 두 여동생, 정신을 잃은 어머니가 있어서 그는 어린 시절부터 농사일과 가축돌보기 등 노동현장에 투입될 것을 강요받는다. 그는 가난과 굶주림으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느낀다. 그는 “가난은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재앙이야. 가난한 사람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 심지어 제 땅을 버리기도 하지. 평생 고향을 가슴속에 품게 되더라도 말이야(25)”라고 여러 번에 걸쳐 말함으로써 이민의 이유가 가난 때문이라고 밝힌다. 그가 겪는 빈곤은 개인적 차원에 머물지 않고 그가 사회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원인이 된다.

라카이 말한 대로, 사적인 영역에서의 아버지의 위치는 공적 영역에서의 사

회적 규범 혹은 법, 즉 상징계에 해당한다. 앞서 논했듯이, 마누엘은 가정 내에서의 생물학적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가정의 역할과 남루한 생활을 강요받는다. 그러나 사회적 규범으로서의 아버지, 즉 상징계도 그를 보호해주지 않는다. 아버지의 부재는 사회적으로 적절한 이념이 실현된 사회규범, 즉 상징계의 부재를 암시한다. 주인공이 스페인을 떠나던 1916년은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여서 적절한 사회규범이 존재하지 않았다. 1911년에 발발한 스페인-모로코 전쟁으로 인해 스페인 정부가 젊은이들을 강제 징용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터에서도 빈부 격차에 따라 병사들이 받는 대우가 달랐던 것이다. 참전 당시 마누엘은 16세였고 굶주림 때문에 몸무게가 36~37kg밖에 나가지 않은 채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했으나 또 다시 징병당할 위협은 늘 존재했다.

144

145

그리고 그 늑의 병역, 병역의 의무를 하나 끝내면 또 다른 병역이 기다리고 있었지. 결국 돈이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해. 전쟁에서 죽는 건 가난한 사람들뿐이거든. 대령과 그 밖의 장교들은 무사히 돌아오지. 독립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였어. 동원되어 쿠바의 산속에 배치되어 괴멸된 이들은 현역 입대한 가난한 신병들이었지. 우리는 모두 배가 등가죽에 붙었는데 장교들은 과식·포식하면서 우리는 배고픔과 싸우게 했지. 배고픔과의 싸움은 갈리시아에서도 늘 하던 것이었어.(Barnet 1981, 16)

적절한 규범이 부재한 사회에서는 빈부 격차에서 비롯된 불평등이 고착화된다. 마누엘은 그 이유를 자본 앞에 눈이 먼 국가의 부패와 연결시킨다. 주인공은 “스페인인들은 거래에 눈이 멀어 모로코인들에게 무기를 판매함으로써 동포들을 죽게 만들었어. 스페인 군인들은 모로코 군인들에게 실탄이 아니라 예포를 쏘았지”(32)라고 말하며 가난한 집안의 청년들은 전쟁의 최전방에서 적군의 총알받이가 될 뿐이라고 비판한다.⁶⁾ 또한 스페인 사회는 마누엘처럼 일

6) 심지어 스페인 군부는 마누엘이 본국을 떠나 카나리아 제도 부근을 지나고 있을 때조차 모로코로 징집해가려고 한다. 항구에서 군인이 한 명 오더니 병역을 수행할 만 한 나이의 젊은이들을 뽑아가겠다고, 그들을 소형 범선으로 옮겨 태워 모로코로 데려가겠다고 말했던 것이다(Barnet 1981, 48). 당시 징집은 주로 21~24세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마누엘이 자신은 16세여서 미성년자라고 말해도 군인은 마누엘을 징발하려는 뜻을 굽히지 않는다.

하고 싶은 젊은이들을 위해 경제를 부흥시키거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마누엘은 조국의 현실에 환멸을 느끼고 아버지가 부재하는 사회를 떠나겠다고 결심한다. 전형적인 성장소설의 플롯은, 남자주인공이 아버지 또는 아버지 같은 존재를 자신과 동일시하고 모방하다 어느 시점에 아버지와, 아버지가 표상하는 모든 가치관에 저항하며 아버지로부터 떠나는 것으로 전개된다. 마누엘은 “나의 가족과 친척들은 나쁜 사람들은 아니지만 후진성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15), “갈리시아에서는 향상되는 사람도,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도 없이 매일 매일이 똑같다”(28)고 말하며 현재에 안주하기를 거부한다. 또한 “갈리시아는 거대한 수면장이므로 모든 걸 두고 떠날 걸 감수하더라도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32)라면서 발전이 없는 삶에서 벗어나 더 많은 기회를 경험하고 새로운 세계와 조우함으로써 발전을 꾀하고자 한다. 그는 “아무도 화나게 만들지 않고 누구에게도 손 벌리는 일 없이 노새처럼 일하며 자신의 운명을 경작하고자”(18) 조국에서보다 더 고된 노동을 하더라도 일자리가 많은 쿠바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겠다고 결심한다.⁷⁾ 즉, 마누엘은 자신의 실제 아버지와 적절한 사회적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속악한 사회로 편입하기를 거부한 채 “인생에서는 앞만 보며 앞으로 나아가고 슬픔을 털어내야 한다”(38)고 단호히 말하며 자기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끈다. 새로이 직면하게 될 사회가 호의적이지

7) 이런 결심은 마누엘 혼자만의 사적인 운명이 아니라 당시 수많은 젊은이들, 루카치의 표현대로 “가상의 공동체나 실제적 공동체를 거치는 가지만 그의 운명이 그 공동체에 함류하지 못하는 고독한 인간”(Lukács 2007, 162)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났다. 실제로 1911년에서 1965년 사이에 거의 1백만 명의 갈리시아 지역민이 아메리카로 가는 배를 탔다. 갈리시아 사람 세 명 중 한 명이 고향을 버리고 아르헨티나, 쿠바, 우루과이, 베네수엘라로 간 것이다(안영옥 2008, 152). 쿠바 정부는 1900년 스페인 출신 백인들의 이민을 장려하는 정책을 입안해 1902년부터 스페인인들은 본격적으로 쿠바로 이민을 가게 된다. 역사가 리처드 고트는 1902년부터 1931년까지 약 80만 명의 스페인 이민자들이 쿠바로 이주했으며, 이 숫자는 지난 4세기 동안의 이민자 수보다 훨씬 많은 수치였다고 지적한다(Gott 2004, 118-120). 마누엘도 갈리시아 젊은이들의 이주를 체감하며 “많은 갈리시아 젊은이들이 쿠바로 떠나려고 쿠바 영사관으로 몰려들어 쿠바 영사관의 벌집 같았다”(41), “갈리시아가 텅 비어가는 것 같았다”(43)면서 당시 젊은이들 간의 이민 열기를 회상한다.

않다 하더라도 주인공은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 법”(20)이라고 하면서, 즉 부지런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은 침체되지 않고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하면서 진취적인 모습을 견지한다.

2. 다양한 사회경험과 이문화(異文化)를 통한 도야

앞서 다룬 것처럼, 불우한 배경을 지닌 중심인물은 그의 생존을 규제하는 사회의 규율을 거부한 채 새로운 영토로 횡단한다. 그는 1916년 3월 3일 생일날 집을 떠났다고 말하는데 생일에 집을 떠나 새로운 세계로 출발하는 것은 새로운 탄생과 새로운 정체성 획득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주인공은 이민국에서의 다양한 경험, 즉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겨우며 때로는 유쾌하고 뿌듯한 경험을 통해 많은 점을 터득하며 자기를 형성해 나간다.

우선, 주인공은 예기치 못한 난관 앞에서의 대처법 등 삶의 지혜를 터득한다. 마누엘은 대서양 횡단 증기선을 타기 전부터 아바나에 도착한 후까지 예상치 못한 장애물과 거둬 조우한다. 여러 사건들 중 대서양 횡단 증기선 안에서 알게 된 호세 군딘(José Gundín)이 요금을 내고도 사기꾼들에게 속아 밀항을 하게 된 사정을 듣고 마누엘이 거짓 증언을 해준 것을 꼽을 수 있다. 사건의 핵심은 호세가 쿠바 입국에 필요한 문서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인데 경찰은 마누엘과 호세를 이주민 수용캠프로 연행한다. 그곳은 건강증명서 등 서류가 미비한 이주민들을 강제 수용하는 곳인데 뇌물을 주거나, 영향력 있는 인사가 감금자를 데리러 와야만 풀려날 수 있었다.

의사들은 수용된 사람의 혀를 들여다보기만 했어. 그 사람이 돈이 있으면 풀려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신의 자비를 바랄 수밖에 없었지. 모든 것이 거래였어. 그곳에서 나오자마자 나는 카를로스 카브레라라는 작자가 중국인들에게 몇 푼 받고 건강증명서를 만들어주면서 부자가 되었다는 걸 알게 됐지. 그들은 폐병을 앓고 있을 수도 있지만 돈만 내면 풀려났어. [...] 수용소 직원들은 나무로 지은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아주 잘 살았지만 이민자들은 무척 곤궁하게 지내야 했어. 유치장 안에서 불일을 보려면 흙바닥에 닿을라 말라하게 앉아야 했는데 그때 *네르토레 아메리카노*라는 기생충이 내 똥속에 들어왔지. 기생충이 내 간 속에서 자리를 잡고 발끝으로 걷기 시작하는 통에

거의 죽을 뻔했어.(Barnet 1981, 55-56)

주인공은 이민 서류를 모두 갖추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용소에 감금될 이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용소는 빈대와 벌레가 우글거리는 비위생적인 곳이었다. 부정부패와 자본의 논리 앞에서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과도한 고생을 하는 상황에 대해 마누엘은 억울함을 느끼거나 자신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한 호세 군단을 원망할 만했다. 그러나 마누엘은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끈끌하게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러던 어느 날 호세의 지인이 그들을 데리러 온 덕분에 마누엘은 그와 함께 수용소를 벗어난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마누엘은 “잘못된 행실 때문에 나를 수용소에 오게 한 사람이 결국 나를 그곳에서 꺼내준 셈이지. 그런 게 인생이야. 그러니 나는 일어나는 일 전부를 기꺼이 맞으려고 해”(Barnet 1981, 57)라며 삶에서 문제가 생겨도 해결방법은 있게 마련이라면서 세상만사에 의연히 대처해야 한다는 지혜를 터득한다.

또한 주인공은 낯선 나라의 대도시에서 스스로 일자리를 구하고 다양한 직업을 전전하며 삶을 개척하는 요령과 일하는 기술, 처세술을 배운다. 그는 “새로 왔기 때문에 조용히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으면서 스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했고”(Barnet 1981, 68) 부두에서 짐수레에 식료품 자루를 싣는 업무부터 시작해서 숯 도매상, 목수, 전차 검표원 등 수많은 직업을 전전한다. 숯장수로 일할 때에는 파비안(Fabían)이라는 동향인(同鄉人)과 함께 일했는데 아버지뻘의 파비안으로부터 선(善)에 대한 교훈, 가난하더라도 품위 있게 사는 법, 셈하는 법, 부패한 관리들과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법 등 항상 삶의 지혜를 배웠고, 또 늘 배우는 자세로 삶에 임했다. 마누엘은 80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나는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할 수 없어. 날마다 뭔가 새로운 걸 배우지. 그게 인생의 좋은 점 아니겠나.”(Barnet 1981, 166)라면서 안주하지 않는 태도를 드러낸다.

그리고 주인공은 쿠바의 다채로운 문화에 노출됨으로써 자신이 갖고 있던 문화와 이문화 간의 교류를 경험한다. 그 중에서 특히 언어 간의 교류를 꼽을 수 있다. 마누엘은 아바나에 도착한 첫날 혼자 걸으면서 갈리시아어(語)와는

다른 카스티야어를 접한다.

내 생각에 여섯 시간은 족히 걸은 것 같아. 모든 걸 보고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걸 알아듣기가 힘들었지. 내 스페인어 실력이 형편없었거든. 고향마을에서 단어들을 익히려고 해봤지만 말이야. [...] 갈리시아인은 카스티야어를 모른 채 쿠바에 도착한 외국인이었어. 모국어 발음에서 비롯된 악센트 때문에 갈리시아 사람은 부당한 비판과 조롱을 받았지. 쿠바인들은, 라틴어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카스티야어와는 많이 다른 고유의 언어가 갈리시아에 있다는 걸 잊은 게지. 쿠바로 이주해온 다른 국적의 사람들과 비교하면 갈리시아인들은 카스티야어에 빠르게 동화되었어.(Barnet 1981, 62)

이 대목에서는 라틴어라는 뿌리는 같으나 각기 다른 두 언어가 충돌하면서 언어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제시한다(Barnet 1981, 62). 마누엘을 포함한 이민자들은 이민국에서 생존과 적응을 위해 이민국의 공식어인 스페인어, 즉 카스티야어를 습득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마누엘은 쿠바에서 약 60년간 거주하면서도 갈리시아어를 전혀 잊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쿠바식 스페인어는 갈리시아 언어 등 다른 언어와 교류함으로써 언어적 변화를 보인다. 이 지점에서 쿠바 문화의 아버지로 여겨지는 페르난도 오르티스(Fernando Ortiz)의 문화변용(transculturation)을 떠올릴 수 있다. 오르티스는 두 개의 상이한 문화가 만나 상호 동화작용과 상호 반작용을 겪은 후 탄생한 것이 쿠바문화라고 규정한다(Ortiz 1983, 86-90).⁸⁾ 쿠바에서 원주민인 타이노 족의 토착문화가 사라진 후 아프리카 흑인, 유태인, 스페인인, 프랑스인, 영국인, 중국인 등 세계 각지로부터 온 이주자들이 정착해 공생하고 상호작용하며 혼종적인 새로운 문화를 창출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주자들은 자신의 뿌리가 되는 문화와 어느

8) 페르난도 오르티스는 1930년대 기능주의 영미 인류학의 문화접변(acculturation), 문화접촉(cultural contact) 같은 용어를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문화접변이라는 용어는, 낮은 문화가 우월한 문화에 적응하며 사라진다는 시각을 견지하기 때문이다. 오르티스는 문화란 서로 주고받는 과정이며 상호 변형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주장하며 문화변용(transculturation)이라는 말을 만들어낸다. 이 용어들과 탈식민주의에 대해서는 우석균의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정도 단절되는 경험을 하고, 이주지의 환경 속에서 문화를 습득하는 과정을 거치며 새로운 문화를 탄생시킨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우석균 2002, 189).

마누엘 루이스는 새로운 언어를 습득한 것 외에도 스페인인과 쿠바인 간의 분위기가 다르고, 그들이 타인과 관계 맺는 방식이 이질적이라고 느낀다.

그 헝가리 아줌마는 때때로 내게 음식을 주곤 했지만 나는 항상 개인주의적이었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려고 나는 내 먹을 것은 스스로 만들었어. 그런 점에서 나는 아주 스페인 사람답지. 쿠바 사람이 창문으로 음식을 주고받는 게 내 시선을 끌기는 해. 그게 더 사교적이잖아. 나는 내 독립심이 늘 마음에 들었지만 말이야.(Barnet 1981, 69)

마누엘에 따르면 갈리시아인을 비롯한 스페인인들은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데 비해 쿠바인들은 친목을 중시하고 상호교류하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경향이 있다. 주인공은 아바나에 처음 도착하던 순간부터 이 도시의 활기찬 분위기와, 타인을 스스럼없이 대하는 쿠바인의 성향을 좋아하게 된다. 그러나 그는 누군가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교류해야 할 상황에 이르면 자신의 독립적인 성격이 마음에 든다고 말하면서 스페인인으로서의 제 성향을 고수한다는 것을 드러낸다. 10년 후 주인공이 갈리시아로 역이주하면서 그는 두 민족의 이질적인 성향을 더욱 확연히 느끼게 되고, 자신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쿠바 문화에 익숙해졌다는 것을 명료하게 깨닫는다.

내가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갈리시아가) 매우 적막하다는 것이었어. 아바나는 어찌됐든 꽤 활기차거든. 고향이 가까워질수록 아바나가 더 그리워졌지, 실은. [...] 내가 다리를 전다는 게 추위 때문에 더 눈에 띄었어. 갈리시아에서는 이럴 때 아무도 “이봐, 절름발이”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아. 그저 위아래로 훑어본 후 서로 귓가에 대고 수군거릴 뿐이지. 나를 쳐다보고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어도 상관 없어. 신경 쓰지 않으니까. 많이 거슬리긴 하지만 그게 갈리시아인 걸 어찌겠어. 모두들 다른 이의 귀에 대고 나직이 말하고는 도망쳐 버리지. [...] 그게 마을에서 수다를 떠는 방식이야. 쿠바에서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만 훨씬 숨김이 없고 수군거림도 며칠 후면 사라져버리지. 갈리시아인은 속에 담아두는 사람들이야. 쿠바 사람은 그렇지 않지. [...] 쿠바인은 속에 담아두지 못하고 결국 모든 걸 털어놓거든. 그리고 뭔가를 말해야 할 땐 면전에 대고 말해. 농담조나 약 올리는 투로 말이지. 여기 쿠바에서는 사생활이 거

의 없어. 내가 전차를 타고 있는데 누군가 고민이 있는 사람이 탄다고 쳐. 그럼 그 사람은 뜻밖에 제 고민을 나에게 털어놓는 거야. 나는 제법 심각한 일들을 듣게 되지. 이혼한 이유, 성병 문제... 전차가 상담소인 셈이지. 다음날 그 사람은 고민을 마음에 담지 않은 채 전차를 타고 나에게 인사도 하지 않아. 그런 거야.(Barnet 1981, 165-166)

역이주 도정에서 마누엘은, 자신이 생각보다 아바나의 분위기와 쿠바 문화에 더 익숙해졌다는 것을 자각한다. 갈리시아 고유의 언어와 노래, 음식 등 고국의 문화를 보존하고자 노력했지만 쿠바 문화에 적응하며 재사회화하는 과정에서 갈리시아 문화의 일부를 잃은 탈문화화(desculturación)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 반면, 자신이 인식하고 있던 것보다 쿠바에서의 경험이 자신의 몸과 마음에 커져이 쌓이고 중첩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듯 두 문화 간의 괴리, 혹은 두 문화의 중첩으로 인해 그는 고향에 적응하지 못한 채 쿠바를 그리워한다. 결국 그는 갈리시아에서의 재적응에 실패하고 마드리드로 이주를 거듭한다. 재이주 장소로 마드리드를 선택한 이유는, 더 이상 가족과 헤어지지 않기 위해 스페인에 머무르되 아바나의 분위기와 가장 흡사한 도시라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마누엘은 마드리드의 활기찬 분위기, 강렬하고 밝은 햇살을 즐기는 한편 새로운 직종에 종사해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마드리드 생활에 적응해 간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곳(쿠바)도 나의 고향”이라고 말하며 쿠바를 내내 그리워한다.⁹⁾

마누엘에게 쿠바가 제2의 조국이 된 데에는 스페인 내전으로 인한 경험도 주요 요소로 작용한다. 스페인 내전이 발발하자 마누엘은 공화국을 지지하며 참전하지만 포로로 붙잡혀 프랑스 남부의 포로수용소로 끌려가고 만다. 그는 조국 스페인이 아닌 쿠바에 있는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내 그들의 도움으로 쿠바로 송환된다. 결국 주인공이 태어난 나라보다 그가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자

9) 비평가 안토니오 카레뇨가 지적한 것처럼 이주를 전후하여 두고 온 땅은 계속해서 과거의 공간, 기억의 공간, 향수와 감상이 어린 곳, 언젠가는 돌아갈 곳인 지향점인 동시에 이상적인 모습으로 각인되는 것이다(Carreño 2003, 773).

선택하고 적응한 나라가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준 셈이다. 재이민 온 쿠바에서 마누엘은 아메리카(América)라는 이름의 여인과 결혼해 딸을 낳아 일가를 이루고, 쿠바 시민권을 신청해 쿠바 국민이 된다. 또한 쿠바에서 이룬 가족과 함께 꾸준히 갈리시아의 가족을 방문하며 본래의 뿌리도 잊지 않고자 한다. 그는 때로는 스스로를 스페인인으로, 때로는 쿠바인으로 인식하면서 두 국가의 정체성을 갖기에 이른다. 요컨대 마누엘에게는 갈리시아와 아바나 모두가 고향이고, 에두아르도 갈레아노가 평한 대로 마누엘은 “두 개의 조국을 가진 사람”(Barnet 1981, 228)이 된 것이다.

이 절에서는 주인공이 다양한 상황을 겪으면서, 모든 문제에는 해결책이 있으니 삶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상황을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고 낯선 곳에서 삶을 개척하며 홀로 서는 법을 터득했다는 점을 살폈다. 아울러 낯선 나라에서 다른 문화와 조우하고 다양한 문화들을 직접 몸으로 겪어내는데 이때 서로 교류하며 영향을 주고받는 경험들은 주인공의 몸속에 켜켜이 쌓이고 중첩된다. 주인공은 다양한 생활현장에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이문화에 끊임없이 노출되는 사이 각기 다른 문화를 접하며 수용하게 되었고, 이런 과정에서 스스로를 두 국가의 국민으로 인식하면서 이전보다 더욱 확장된 정체성을 지니게 된다. 이렇게 해서 마누엘은 자아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세계에 대한 이해의 범위를 확장한다.

3. 사회로 시선 확장

성장소설에는 주인공의 개인적인 성장사와, 주인공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그 시대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화자의 비판과 통찰이 드러난다(이보영 · 진상범 · 문석우 1999, 15). 전통적인 성장소설에서는 사회에서의 능동적이고도 관조적인 양가적 태도 사이의 접점을 추구하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은 욕망과 세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능력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성장이 이루어진다(Lukács 2007, 161). 그러나 미겔 바르넷의 『갈리시아인』에서 주인공은 세계를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관조적 태도와, 세상을 변화하려는 능동적

인 자세 간에서 타협하는 데 머물지 않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사회와 관계를 맺으며 사회에 참여하고자 한다.

우선, 주인공 마누엘은 종종 사회에 대해, 즉 자신이 떠나온 스페인 사회와 현재의 생활기반으로 삼고 있는 쿠바 사회에 대해 논평하며 비판적 태도를 드러낸다.

갈리시아 전체가 곤궁함을 겪고 있었어. 젊은이들은 모로코의 최전방으로 가곤 했지. 그 중 많은 이들이 돌아오지 못했어. 모로코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 발포하는 것보다는 장사를 하는 게 더 중요했거든. 스페인 사람들은 모로코인들에게 무기를 팔아 자신의 동포들을 죽게 만들었어. 군인들은 실탄이 아닌 예포를 쏘곤 했지. 구역질나는 짓이었지!(Barnet 1981, 31-32)

152

153

마누엘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 본연의 임무는 수행하지 않은 채 오히려 자본의 논리 때문에 자신들을 사지로 몬 스페인 정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다. 또한 새 삶의 터전으로 삼은 쿠바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는 쿠바의 풍부한 자원과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로 인해 부패와 빈곤, 불평등이 야기되는 모습을 진술하는 목격자 겸 비판자로서 사회에 참여한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메노칼(Menocal)은 쿠바를 국가부도 사태로 이끌며 가장 많은 채무를 지게 한 장본인이야. 정말 애석한 일이었지. 쿠바의 자원이 아무렇게나 마구잡이로 주어졌거든.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바나나나무 숲이 줄지어 서 있고, 그 맞은편에는 감자밭이 망고나무 숲에 에워싸인 것을 보는 건 이 나라에서는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야. 그런데 쿠바인들이 그토록 궁핍하게 살다니 그건 얼토당토않은 일이었지.(Barnet 1981, 66)

1910년대 후반 쿠바는 미국의 내정간섭과 부패한 지도자들로 인해 끊임없는 혼란을 겪고 있었다. 미국은 메인 호 사건을 계기로 쿠바에 본격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1902년 미국은 명목상으로는 쿠바의 독립을 인정했지만 정치 투쟁이 격화되자 1906년 또 다시 쿠바를 침략했다. 1909년 미국이 인정한 친미 성향의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며 쿠바에서는 부패하고 인종차별적인

지도자들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미국은 1912년에는 반란을 진압한다는 명분 하에 군사적으로, 1917년에는 설탕산업 보호를 위해 경제적으로 개입했다. 설상가상으로 쿠바의 독립을 이끌었던 지도자들마저 쿠바 민중의 기대를 저버리고 친미적 정책을 입안하면서 개인적인 잇속을 추구하기에 급급했는데 메노칼도 일신의 이익을 위해 쿠바 내정에 미국이 간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마누엘이 사회비판이라는 간접적이고 소극적인 방법으로만 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쿠바로 이민 온 지 3년 만에 비로소 본국의 가족에게 송금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되었는데 이렇게 가족을 건사할 수 있게 되자 자기와 가족이라는 사적 영역의 생존과 안녕을 추구하는 데 머물지 않고 “마을에 학교를 세우도록 갈리시아 협회에 돈을 보내기 시작”(Barnet 1981, 93)하는 등 공동체와 지역사회라는 공적 영역의 공익을 위해 기부를 시작한다. 쿠바에 도착한 이래 주인공은 부두에서 짐을 하역하거나 곡물자루를 옮기고, 행상하며 숯과 먹을거리를 팔고, 목수로 일하는 등 힘겨운 육체노동을 하며 생계를 꾸렸으나 생활이 윤택해지지는 않았다. 더욱이 그는 일을 많이 해서 수많은 병에 걸리기도 했다. “항상 결핍과 장애물이 그를 따라다녔지만”(Barnet 1981, 167) 마누엘은 공동체로 시야를 확장해 공공의 선(善)을 추구하게 된다.

그가 처음 기부를 한 갈리시아 협회는 1871년 아바나에 설립되었는데 이곳은 쿠바와 라틴아메리카로 이주하는 갈리시아인들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협회이다(Barnet 1981, 92). 당시 쿠바 및 라틴아메리카에 이민 온 스페인 지역사회 회원들은 본국의 공공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자산을 불입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교를 세우고, 마을에 조명을 설치했으며, 하수도 시설과 공공의료 시설을 확충하였다. 그 중에서도 아바나 소재의 갈리시아 센터는 광범위한 업적으로 두드러진 곳이었다. 마누엘은 이렇게 사회로 시선을 확장해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자아를 확장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갈리시아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더럽고 무식한 짐승 같은 존재라며 부당하게 멸시당한 경험을 극복하려는 욕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참여적 활동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조국 스페인에 내전이 발발

하자 직접 참전한다.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은 사회에 참여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스페인 내전이 발발하기 전 마누엘은 스페인으로 돌아와 마드리드의 한 세탁소에서 3년째 건실히 일하던 참이다. 그는 쾌활한 분위기의 마드리드가 무척 마음에 들었으나 프랑코가 모로코에서부터 공화국 정부를 위협하면서 마드리드를 비롯한 스페인 전역이 극도로 혼란스러워진다. 그는 내전이 임박했다는 걸 깨닫고 애인을 북쪽 지방으로 피신시킨 후 자신은 다리를 저는 몸이지만 마드리드에 남아 민병대에 지원한다. 그는 “피를 보러 전쟁터에 오는 사람도 있고 조국에 대한 의무를 다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내 경우는 후자였어”(Barnet 1981, 178)라고 말하며 자신이 참전한 까닭이 성품이 호전적이거나 전쟁을 통해 입신양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의(大義) 때문이었다고 술회한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그다지 정치적이지 않은 사람이지만 “세탁소에서 일하는 우리는 모두 공화당 좌파에 공감했지. 우리가 노동자로서 공화국 정부에 공감한다는 건 추측 가능한 일이야. 공화국 정부가 노동자를 위해 세운 업적과 노동자들에게 한 약속 때문에 지지한 거였어.”(Barnet 1981, 174)라면서 공화국 정부를 지지한 이유가 정부의 기조와 정책 때문이었음을 드러낸다. 그러면서 자신이 공감한 공화정 정책과 사회 분위기를 제시한다.

사실 아니세토와 다른 사람들이 공화국 정부가 역대 스페인 정부 중 최고라고 나를 설득했어. 내가 보기에 그랬어.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고, 노동조합 지도부에 노동자들이 많이 있었고, 성직자를 정당하게 비판할 수 있었고,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거든. 여자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졌고, 이혼법이 승인되었지.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 그래서 내 평생 처음으로 격렬하게 정치 활동을 했지. 사람들이 순수 민주주의의 체제 속에서 살던 시절이었어.(Barnet 1981, 176)

마누엘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국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민주주의 수호라는 대의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주인공은 작품 초반에는 자신의 생존과 가족들의 생계라는 개인적인 영역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차츰 지역사회와 공동체, 나아가 시민사회와 민주주

의 체제라는 공적 영역으로 관심의 범위를 넓혀간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속한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기부를 하고 전쟁에 참가하는 등 개인의 재산과 안전을 희생하며 사회에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결론

이 작품의 주인공인 갈리시아 이주민은 일견 누추하고 불안한 현실에서 사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의 어조에는 좌절, 체념, 허무, 환멸보다는 오롯이 깨끗하게 현실을 살아가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지배적이다. 또한 항상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두드러진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온갖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한 이주민의 성장 국면을 세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다루고자 했다.

첫째, 주인공은 아버지의 부재를 극복하고자 투쟁하는 과정에서 성장한다. 이때 ‘아버지’란 실제 아버지와 사회적 규범이라는 두 가지 층위를 의미한다고 여겼다. 아버지의 부재는 사회와의 화해를 어렵게 해 주인공으로 하여금 고통을 유발함과 동시에 타락한 사회로부터의 이탈을 허용한다. 이에 주인공은 순응적 주체로 사회에 편입되기를 거부하며 쿠바, 즉 새로운 세계로 횡단한다. 둘째, 주인공은 다양한 사회경험과 이문화(異文化)를 통해 세상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혀나간다. 다채로운 모습의 사회를 겪으면서 삶에 대한 이치와 지혜를 터득하고 다른 문화들을 경험하며 정체성이 확장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주인공은 스스로를 갈리시아인이라고 여기면서 동시에 쿠바인이라고 느끼게 되고 결국 스페인과 쿠바를 모두 조국으로 생각하게 된다. 셋째, 개인과 가족이라는 사적 영역에 대한 관심을, 지역사회와 공동체라는 사회로 확장함으로써 성장이 이루어진다. 주인공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사회와 시대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비판의식을 보이는 한편 지역사회를 위한 기부와 스페인 내전 참여라는 직접적이고도 적극적인 방법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이 과정에

서 그는 차츰 성숙한 시민의식을 드러냄으로써 과거의 자신으로부터 진일보한 모습을 보인다.

이민생활은 녹록치 않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는 자신의 경험에서 의미를 찾아내었고 그것을 통해 내적 발전을 이루었다. 이와 같이 디아스포라 경험은 주인공에게 배움과 성장의 장(場)으로 작용했다.

참고문헌

- 송병선(2002), 「포스트콜로니얼리즘과 증언 소설의 시학」, 스페인어문학연구, Vol. 23, pp. 341-354.
- 안영옥(2008), 『올라 에스파냐: 스페인의 자연과 사람들』, 고려대학교출판부.
- 우석균(2002), 「페르난도 오르티스의 통문화론과 탈식민주의」, 이베로아메리카연구, Vol. 13, pp. 181-197.
- 이보영, 진상범, 문석우(1999), 『성장소설이란 무엇인가』, 청예원.
- Barnet, Miguel(1981), *Gallego*, Madrid: Alfaguara.
- _____(2011), *La fuente viva*, La Habana: Editora Abril.
- Carreño, Antonio(2003), “Topografía de la memoria: Identidad y cultura en Gallego de Miguel Barnet,” *Hispania*, Vol. 86, No. 4, pp. 773-781.
- Gadamer, Hans-Georg(2000), *Wahrheit und methode: Grundzuge einer philosophischen Hermeneutik*, 이길우/이선관/임호일/한동원 옮김 『진리와 방법 I: 철학적 해석학의 기본 특징들』, 문학동네.
- Gott, Richard(2004), *Cuba: A New Histo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Kushigian, Julia A.(2003), *Reconstructing Childhood*, Lewisburg: Bucknell University Press.
- Lukács, Gyorgy(2007), (Die) *Theorie des Romans: Ein geschichtsphilosophischer Versuch über die Formen der grossen Epik*. 김경식 옮김 『소설의 이론: 대(大) 서사문학의 형식들에 관한 역사철학적 시론』, 문예출판사.
- Naranjo Orovio, Consuelo y González Martínez, Elda Evangelina(1984), “Notas bibliográficas sobre la emigración española a América Latina en el siglo XX: El caso de Cuba y Brasil,” *Revista Española de Investigaciones Sociológicas*, No. 26, pp. 215-226.

Ortiz, Fernando(1983), *Contrapunteo cubano del tabaco y el azúcar*, La Habana: Editorial de Ciencias Sociales.

Sklodowska, Elzbieta(2002), “Miguel Barnet y la novela-testimonio,” *Revista Iberoamericana*, Vol. LXVIII, No. 200, pp. 799-806.

조혜진

서울시 강북구 번2동 148-141 스카이뷰 B동 501호
felicidad77@naver.com

논문투고일: 2015년 7월 15일

심사완료일: 2015년 8월 13일

게재확정일: 2015년 8월 19일

Diaspora Experience and Identity Transfiguration in Miguel Barnet's *Gallego*

Hye Jin Cho
Korea University

Cho, Hye Jin(2015), Diaspora Experience and Identity Transfiguration in Miguel Barnet's *Gallego*. *Revista Iberoamericana*.

158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an immigrant's diaspora experience, formation conditions and identity transfiguration in Miguel Barnet's *Gallego* from the viewpoint of Bildungsroman. First of all, the protagonist achieves development struggling to move away from the father figure, that is, he makes an effort to overcome both biological father's absence and that of social norms. Second, the hero broadens his own perspective confronting with diverse social experience and different culture one. He learns worldly wisdom and logic of how things go in the world through various experience living in two countries. Lastly, the central character accomplishes development participating in his society because thereby he expands his focus of interest from private lives to public sphere. This paper concludes that hero's diaspora experience is a fundamental element for his own formation.

159

Key words Bildungsroman, Identity, Diaspora, *Gallego*, Miguel Barnet